|  |  |
| --- | --- |
|  | **보 도 자 료** **Press Release** |
| **2021년 10월 19일** | **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.** |
| **총 1장**  | **담당: 홍보실**  |
| **전화: 02-3701-7338** | **이메일:** **communications@asaninst.org** |

|  |
| --- |
| **아산정책硏, ‘기후변화와 COVID-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** **이해와 시사점’ 이슈브리프 발표** |

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19일(화),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“기후변화와 COVID-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”을 출판했다. 이 이슈브리프는 올해 초 많은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기후변화가 COVID-19 감염병 발생의 원인이라는 한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, 대표적인 신흥안보위기로서의 기후변화나 감염병과 같은 개별 위협요인들 간 상호연계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. 아울러,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연계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시사하는 것들,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요인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 앞선 인류와 공생 및 공진화하고 있는 감염병으로서의 발생 및 확산 전파 분석의 필요성, COVID-19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정책적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.

최근 주목을 받았던 기후변화가 COVID-19 감염병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한 실증연구는 기후변화와 가져온 생태환경 변화의 파괴적 연쇄효과에 대한 추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으로 더욱 의의를 지닌다. 아직 초기단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후변화가 COVID-19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창발(創發)에 주요 원인이라고 성급히 결론 맺는 것은 그 변수들 간의 복잡한 연계성을 단순하고 직접적인 인과 관계로 축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한다. 현실적으로,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피해와 손실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있어서 보다 심각할 수 있는 지역적 혹은 국가적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질병 확산이나 감염병 대응 만이 부각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정된 국가 자원과 정책적 노력이 비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|  |
| --- |
|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. 한반도, 동아시아,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,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. |

신흥전염병의 발생와 확산의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종식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램을 담고 있다. COVID-19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, 특히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에 대한 큰 관심이 시사하는 바도 있다. 과거 다른 지역의 풍토병으로 인식되어 왔던 각종 감염병들이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새로운 보건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고,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지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여전히 진행 중인 COVID-19 팬데믹의 극복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, 이 극복 경험을 통해서 인류와 함께 공진화(共進化; coevolution)하며 새롭게 등장하게 될 신흥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도모해야만 한다. 따라서, COVID-19 대응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국가적 대응 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,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평상 시 백신 개발 능력의 제고나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 등의 정책적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.

\*보고서 관련 문의: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02) 3701-7315, [choice@asaninst.org](file:///D%3A%5C%EB%82%B4%20%EC%A4%91%EC%9A%94%EB%AC%B8%EC%84%9C%5CDownloads%5Cchoice%40asaninst.org)